

인물사진 잘 찍는 방법



바야흐로 봄이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우리의 몸은 들로 산으로 놀러가라고 재촉한다. 이때 빠질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혁명시대라는 요즘에 걸맞게 디카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초보 디카족들은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도 썩 마음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보다 예쁘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찍는 인물 사진 중심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살펴보자.

■ 빛의 흐름을 알자.

사진에 있어서 빛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얼굴의 형태에 따라 효과적인 빛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측면광보다는 정면광이나 역광인 상태가 좋은 사진을 나타낸다. 강한 측면광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입체감이 살아날 수는 있으나 얼굴의 질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 보기 싫은 그림자를 만들어 사진을 망치는 수가 있다.

■ 자연스러운 표정과 순간을 포착하라.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카메라 앞에 서면 표정이 굳어져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하나, 둘, 셋이나 김치 등을 말하면서 찍지만 그로 인해 더욱 경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를 세는 동시에 사진을 찍거나 가벼운 농담 등을 건네며 여러 컷의 사진을 찍는다.

생동감있는 장면이나 표정을 위해 순간 포착도 중요하다. 차렷한 정적인 자세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행동을 기다리며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여유와 항상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욕심을 버리자.

‘사진은 뽀샵(-)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욕심을 버리고 단순화 하라는 말인데 초보자의 경우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담으려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 사진 한 장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는다는 생각으로 단순화 시키자.

■ 눈높이를 맞춰라.

위에서 내려찍는 하이앵글이나 아래에서 올려찍는 로우앵글도 나름 대로의 멋과 장점이 있지만, 초보자들은 멋이나 기교보다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앵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에는 자세를 낮춰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다. 어른의 눈높이에서 촬영된 아이의 사진은 왠지 불안해보이고 왜소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사진에는 아이가 더욱 통통하고 예쁘게 보인다.

■ 트리밍에 인색하지 말자.

일종의 고정관념이 사진을 찍을 때도 작용한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데 인색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반신 사진 등 인물을 부각하여 사진에 힘을 신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양팔 등을 트리밍하여 강조하면 과감하고 힘있는 사진이 된다.

■ 인물 촬영시 몸 전체에 너무 신경쓰지 않는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몸 전체가 나오게 되면 얼굴이 잘 안 보이거나 주변 배경에 인물이 가려져 식상한 사진이 되기 쉬우므로 인물 촬영시에는 얼굴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

■ 사람은 가깝게 배경은 멀리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면 기념사진을 많이 찍는다. 내가 이곳에 왔다는 일종의 증거물인 셈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화면 가득 채운 배경과 함께 새끼손가락만한 인물은 얼굴이 너무 작아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배경과 인물 모두를 살리려면 배경 가득 구도를 잡은 후 인물을 카메라에 가깝게 서도록 한다. 그러면 인물은 크게 부각되고 뒤로 멋진 배경이 깔릴 것이다.

■ 적목 현상을 예방하자.

플래시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에는 눈동자가 빨갛게 되어 섬뜩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적목현상이라고 하고, 이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되는데 플래시가 터지면 망막에 플래시 빛이 반사되어 카메라 렌즈에 빨갛게 찍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의 적목감소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찍기 전에 플래시를 한번 터뜨려 눈을 빛에 적응시킨 후 사진 찍는다. 혹은 눈에 플래시가 바로 받지 않도록 고개를 약간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작은 불빛도 촬영에 이용해 보자.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빛이 약하여 사진찍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플래시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실내등만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형광등은 광원의 특성상 청록색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푸르스름한 색상으로 나타나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백열등은 형광등보다 색온도는 떨어지지만 따뜻한 색인 붉은 계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